

#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The Ceremony for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50th Anniversary of Founding

대한건축사협회가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반세기를 설계한다. 지난 10월 23일 건축사 회관(서초동 소재)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서 조충기 회장은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오늘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건축사협회라는 깃발아래 묵묵히 전진하여 우리의 후배에게 건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전했 노라 후대가 평가할 수 있게 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건축사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합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대한민국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해 온 건축사와 협회의 업적을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였던 이날 기념식에는 많은 대내외 인사 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문열 작가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한만희 前 국토부 차관(서울시립대 국제 도시과학대학원장)과 협회 창립년도부터 현재까지 50년간 건축사로서 대한민국 건축문화 발전에 기틀을 마련한 19명의 공로회원, 역대 고문, 임원 및 17개 시도건축사회 회장단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동시행사로 경력부족 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신진건축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신진건축사대상 시상식과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대상에서는 홍영애 건축사(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가 수상하였다. 또한 협회창립 (1965)과 함께 입회하여 현재까지 50여 년간 정회원으로 협회 발전과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에 산증인인 김승환 건축사의 18명의 건축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는 등 신규 건축사가 화합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밖에도 “협회 50년 역사 재조명과 미래비전” 영상과 부대행사로 치러진 UCC공모전의 참가작이 상영됐으며, 건축사 현장 낭독과 비전 선포 및 성악가와 건축사회원의 건축사 찬가 제창, 국악단 소리개의 축하공연, 시루떡 커팅식 등이 행사를 다채롭게 했다.



1



2



3



4



5

1. 기념사를 하고 있는 조충기 회장
2. 축사를 하고 있는 김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3. 신진건축사대상 수상자들과 조충기 회장
4. UCC 공모전 수상자들과 조충기 회장
5. 조충기 회장(뒷줄 오른쪽), 류춘수 50주년 기념위원장 (뒷줄 왼쪽)과 창립 공로회원들

## 기념사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감격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적으로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기에 더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아울러,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하는 이 자리에 서서 무한한 감회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있어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큰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그 한 축에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있었습니다.

창립당시 우리나라는 건축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땅에 건강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물을 주고 꽃을 피워 지금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건축문화유산과 도시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적 뒤에는 이 땅의 건축문화 창달의 주역인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협회는 온갖 시련 속에서도 건축의 정도를 걸으며, 큰 발전을 해왔습니다. 1965년대 회원 128명에서 이제 회원 9,622명에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와 124개 지역건축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등록원, 건축사교육원, 건축연구원, 건축사공제조합을 포함한 탄탄하고 체계적인 조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의 비약적인 발전은 그간 고문님, 임원님, 선배 건축사들과 회원 그리고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젊은 협회입니다. 곳곳에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 가운데, 우리는 단지 업역을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 건축!

건축의 이상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으로!

건축사 사명의 묵묵한 실천으로 건축사의 자존심을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은 그 시대 사람들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는 거울의 의미를 넘어, 후대에 세계 속에 빛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건축사는 건축을 통한 삶의 질을 증진시켜 나가며 국민의 행복,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거울삼아 앞으로의 희망찬 50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갑시다.

반세기 동안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해주신 국민과 건축사, 건축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조충기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 주시고,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건축사회원 여러분과 내빈들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대한건축사협회가 있기까지 협회와 건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공로 회원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노력하고 성장한 만큼 마땅히 축하받으며, 새로운 비상과 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매우 기쁘고, 뜻 깊은 날입니다.

지난 1965년, 앞에 모신 공로회원님들을 포함한 128명의 건축사 회원으로 시작한 우리 협회는 당시 건축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을 50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세계 그 어느 곳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건축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선배 건축사들의 부단한 노력은 여기에 모인 동료와 후배들이 그 뜻과 의지를 이어받아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건축문화 강국을 꽃피우게 하는데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총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께서 다가오는 새로운 50년, 대한민국 건축과 대한건축사협회가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저 역시 50주년기념위원장으로 협회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 또 이 뜻 깊은 행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50주년기념위원회 위원장 류 춘 수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를 기념하여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은 지친 하루의 일상을 위로하고 내일을 위한 생활의 힘을 재충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름답고 창조적인 공간은 우리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의 힘을 창출하는 건축은 국민 여러분의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50년 간 국민의 삶을 담은 공간을 디자인하고 가꾸어 오신 건축사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건축사협회가 대한민국 건축문화의 발전을 선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아름답고 안락한 공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김무성

## 축사

안녕하세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태원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발전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965년 협회 창립 이후 오늘 창립 50주년이 되기까지 건축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건축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기념식 준비를 위해 애쓰신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건축사 여러분,  
건축문화는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입니다. 훌륭한 건축물 하나가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의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건축문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등 세계 유명한 건축물은 그 나라를 알리고 랜드마크가 되어 국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건축물은 우리나라의 업체(삼성물산, 쌍용건설)가 건설해 세계에 우리 건축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건축의 우수성을 이어가려면 건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한 관리하에 건축되어야 합니다.

예술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기능적 가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법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차원에서도 건축물의 안전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건축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단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태원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잿더미로 변해 생활과 경제의 기반이 무너진 시기,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운 건축사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가능했습니다.

압축적인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일구어 낸 건축사 여러분의 도전 정신이야말로 지난 반세기 한반도 역사상 가장 진취적이고 웅대한 서사시를 써내려간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들의 구심점이 되어 우리 건축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묵묵히 그 역할을 수행해 온 대한건축사협회의 헌신에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책적, 산업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변혁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시대에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을 빠르게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문화가 녹아있고, 안전하고 쾌적하며, 에너지도 덜 소비하는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정부는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이 새로운 건축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으며, 건축사 여러분과 대한건축사협회의 협조로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책이 현실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이를 담당하는 주체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사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건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이 올라가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유 일 호



## 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창립50주년을 축하드리며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의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는 건축사들의 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건축물은 한 나라의 사회,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적인 유산으로 후세에 그대로 남겨진다는 점에서 훌륭한 건축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대한건축사협회의 그간의 노력은 어느 건축관련 단체보다 열정적이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협회와 학회는 인증원과 등록원 설립, UIA대회 서울유치 등을 통해 미래건축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써 왔으며 훌륭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는 대한건축학회는 앞으로도 대한건축사협회와의 돈독한 유대관계 속에 우리나라 건축문화창달을 위해 같이 힘쓰며, 소중한 파트너로써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대한건축학회 회장 김 광 우

## 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1965년 창립 이래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발전과 기술개발,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건축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건축사는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는 건축물과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기획, 설계, 감리등과 같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민의 생활의 안정과 국가 경제의 성장에 꾸준히 기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중요한 성과와 역할을 수행해왔던 건축계에서도 최근 건설 산업의 침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설계업계도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노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젊은 건축사들을 적극 양성하고, 해외시장에서의 리스크 회피를 위한 능력을 배양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건축사들이 건설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건설협회 회장 최삼규

**축사**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 향상을 위해 이바지해 오신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계부터 감리까지 최고의 우수 건축물 준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9천 4백여 건축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내 건축문화 발전과 기술향상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주택협회 회장 **박창민**

## 축사

먼저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주택·건설산업의 토대가 되는 건축문화발전을 이끄는 단체로서 첫발을 내디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창립 50주년을 맞는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창립 이래 지금까지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 조성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대한건축사협회는 척박한 국내 건축산업 환경속에서도 반세기 동안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건축관련 단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수준 높은 활동을 전개한 결과, 건축산업 발전과 선진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협회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주택건설산업은 본격적인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갈수록 다양화·고급화되어 가는 소비자들의 주택구매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택업체들은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특히, 주택의 질적 수준은 이제 주택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주택 디자인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주택산업 환경에서는 대한건축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차대합니다.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아름답고 안전한 건축물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한국건축문화를 발전·계승하고 미래 건축산업을 선도하는 등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때 우리의 주택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는 대한건축사협회가 1965년 처음 출발할 때의 마음가짐과 자세로 21세기 건축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한편, 국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건축물을 제공하는데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 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더욱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문경

## 축사

대한건축사협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반세기동안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여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건축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같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건축사들의 권익향상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최근 다가올 50년을 위해 캐치프레이즈를 ‘건축사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한다’로 정하였습니다. 변화하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손색 없는 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함께 모든 국민의 이익과 공공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축을 해야 진정한 의미의 건축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50년도 대한민국 건축의 선봉장으로써 모든 국민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신다면 과거 성장 위주의 건설산업에서 동반자로서의 건설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모든 관계자 및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더욱 든든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정순귀

## 축사

우리 삶의 공간을 다채롭게 디자인해 온 건축사들의 요람인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축설계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소통이자, 인간의 창조성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예술이자, 문화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건축사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의 품격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번득이는 영감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축문화와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도록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훌륭히 해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협회와 20년을 동고동락한 건설산업의 동반자인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 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조충기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장단과 임직원, 나아가 건축사분들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 노진명

## 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품격있는 건축문화를 가지고 선진 건설산업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오신 건축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축사 분들의 열정과 협력으로 건축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대한건축사협회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계획단계부터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전 기간 동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설 및 건축분야가 우리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모든 건설인 가족들이 그 중심이 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50년 또한 대한건축사 협회가 등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김정중**

## 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창립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축사의 품위보전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끊임없이 경주하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여러분들께 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세월 건축사협회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과 업계의 당면 현안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사 단체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우리 건설업계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하여 건축업계 뿐 만 아니라 건설기초자재인 골재업계를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인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헤쳐나간다면 참다운 건설문화를 꽃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대한건축사협회 창립50주년을 축하드리며, 더욱 크게 번영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골재협회 회장 **박도문**



## 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건축 분야는 우리나라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건축·도시환경 조성,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 향상뿐 아니라 건축사들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해 오신 대한건축사협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개발 수요가 줄어들면서 우리 분야는 전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건축문화와 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여 만물의 원리를 깨닫는 나이라고 해서 나이 오십을 지천명(知天命)이라고도 합니다. 시대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며 건축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지금,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50년 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건축 분야의 발전에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김대익

